

# 신세계·현대 “기본”, 롯데 “변화”… 위기상황 직면 공감대

## 유통공룡 신년 키워드

2일 신세계·롯데·현대 유통 수장들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3대 기업 수장들은 모두 일제히 지금의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세계와 현대는 기본을, 롯데는 지속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실패를 두려워 말고 패러다임을 주도하자는 내용이 이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 ◆신세계 “기본과 본질에 충실할 때 위험과 위기는 도약 자산 될 것”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거침없는 변화 대신 기본에 집중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신세계 유니버스 구축을 천명하면서 대대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는 신년사에서 “위험을 직시하고 준비된 역량으로 정면돌파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이 곧 신세계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위기의식’은 다가오는 재난을 막아주는 고마운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하고,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위기를 포착하고 대응하는데 빈틈이 없어질 것”이라며 기민한 위기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시대에 “고객과의 접점이 큰 리테일 비즈니스는 더 큰 위기에 직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위기일수록 기본 우선  
고객에 광적으로 집중  
위기 대응 관점의 전환



신동빈  
롯데 회장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  
기존 틀 깨고 나아가야  
유연한 사고·문화 갖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위기 후 더 큰 도약 준비  
기본적 가치·목적 충실  
본원적인 고객관점 고민

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고객에 광적으로 집중할 것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대화할 것 ▲위기 대응 관점의 전환 등 세 가지를 꼽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할 때 위험과 위기는 도약을 위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기본’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 ◆롯데 “생존을 위한 자기 혁신은 필수 불가결”

신동빈 롯데 회장은 현 상황을 영구적 위기의 시대라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3사 중 가장 변화와 관련한 단어를 많이 사용해 최근 이어가는 쇄신을 올해도 거듭할 의지를 보였다.

신 회장은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생존을 위해 자기 혁신은 필수 불가결하며, 회사를 성장하게 하는 열쇠 또한 혁신하는 용기다”는 말을 인용

하면서 “새로운 영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순히 실적 개선에 집중하기보다 기존 틀을 깨부수고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임직원 개개인의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했다.

또 “긴 안목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며 기업가치를 높이고 고객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한편 우리 사회를 더 이롭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불확실한 미래라도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 문화 쇄신에 대한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조직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 리더십과 외부에서의 새로운 시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마인드도 필요하다”며 “도전 과정에서 혹여 어려

움에 봉착한다 해도 그 속에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찾는 유연한 사고를 갖길 바란다”고 젊은 리더십과 오픈 마인드, 유연한 사고를 가져달라 당부했다.

### ◆현대백화점그룹 “격변의 시대에 기본적인 가치와 목적에 충실해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격변의 시대를 맞았으며,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현대만의 성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발표한 비전 2030에 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비전 2030은 현대백화점그룹이 새로운 사업 방향성을 바탕으로 2030년 그룹 매출 규모를 40조원대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다.

정 부회장은 “‘비전 2030’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생기겠지만, 위축되지 말고 계획을 보완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며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

할 수 있는 능력이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새해 다짐 삼아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을 위기 이후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3가지로 ▲기본적인 가치와 목적에 충실할 것 ▲‘리프레이밍’을 통한 최적의 가치 발굴 ▲ 담대한 도전과 내외부 파트너십에 기반한 성장 추구 등을 꼽았다.

정 회장은 특히 “각자의 업무와 사업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형식적인 형식을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목적에 충실함’(Based on Basics)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의 이익에 집중하기보다 ‘고객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본원적인 고민을 하면서, 바뀐 경영환경에 맞게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켜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신년 달라지는 제도

# 증권거래세율 0.20%로 인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

## 주식 시장

### IPO 허수성 청약 폐널티 강화 배당액 선공시, 후투자자 개편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인하되고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 0.23%에서 올해 0.20%로 단계적으로 인하돼 24년 0.18%를 거쳐 25년에 최종 0.15%로 조

정된다. 또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자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년간 미뤄졌다. 유예기간에는 현행법대로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다.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주식 호가 단위도 25일부터 변경된

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1000~2000원의 가격대의 호가 가격 단위는 5원에서 1원으로 낮아진다. 1만~2만원대는 50원에서 10원으로 내려간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 주식의 호가 가격 단위는 하나로 통일된다. 10만~20만원대 단위는 100원, 20만~50만원대는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변경된다.

올해부터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납입 능력을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허수성 청약이 제한된다. 주관사는 자체적으로 기

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확인하고 능력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물량을 배정한다. 허수성 청약이 발견되면 배정 물량을 축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폐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당제도도 개편된다. 그동안 배당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같이 투자자들이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하는 문제

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배당제도는 앞으로 기업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용자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이 원상복구 된다.

담보비율을 130%까지 낮췄던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등은 2일부터 다시 담보 유지 비율을 140%로 높였고,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해왔던 한국투자증권은 원상대로 돌렸다. 이에따라 시장에서는 신용융자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 반대매매 물량 출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부동산 시장

### 6월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6억→9억, 1주택자는 11억→12억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 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세금·대출·재건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올해 적잖은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2일 부동산R114가 ‘2023년 부동산 제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

가’로 변경된다.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 할 때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5년→10년

올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

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올 6월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종과세율도 폐지된다. 기존 종과 대상이었던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종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 ◆6월부터 종부세 6억→9억원 상향

정부는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

내,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 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증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증자리론’도 운영한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해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춘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김대환 기자 kdh@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